



소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도와 선교에 힘쓰시다!

연중 제26주일, 이민의 날 | 2019. 9. 29.(다해) 제2180호



구산성지 사진 / 양병주 분도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카 16,31)



요즘 신자들은 죄가 없다!



요즘 신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고해소에 앉아 있어보면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일미사에 빠진 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좀 있고, 대개의 신자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넘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기에 크게 죄지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느님 앞에서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우쳐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라자로는 종기투성이의 굶주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승에서는 그들의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부자는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자기 집 문간에 굶주린 채 살아가던 라자로를 외면하고 자신만 돌보며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라자로를 내쫓거나 타박하지 않았고 그저 못 본척하고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았고 바로 곁에서 고통 속에 살았던 라자로를 모른 체한 것이 바로 부자의 죄였던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깨우쳐주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신앙인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그냥 기도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며 조용히 사는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부자처럼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 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상관없이 이웃을 외면하고 무관심과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비유 속의 부자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소 안에서 깊이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할 죄는 “이웃을 외면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궤멸**



“단지 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제적 선진 사회들에서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실리적 사고방식과 결부되고 매체를 통해 강화되어 ‘무관심의 세계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과 난민, 실항민,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배척의 표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힘없는 이들인 이민과 난민의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의 초대가 됩니다. 오늘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 안주해 버릴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류의 일부 본질적 차원들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민을 돌볼 때, 우리 모두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민에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오늘날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계속 숨기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일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마태 5,46) 이는 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 줍니다.(야고 2,18 참조) 가장 고결한 사랑은 보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조차 없는 이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워 집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바쿠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이슬

람 사원에서 한 연설, 아제르바이잔, 2016.10.2.)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이는 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에 관한 문제이며 모든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사명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충만한 생명의 선물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 활동과 계획과 사목 활동에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이민이 제기하는 도전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음의 네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민과 난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환대와 보호와 증진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치를 실천한다면, 하느님과 인간의 도성을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모든 사람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공동체가 세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담긴 기도 안에서, 여정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세상의 모든 이민과 난민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동반하는 모든 이에게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담화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 “지역 방송도 전국 방송만큼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지역 뉴스채널의 기자, 프로듀서, 기술진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지역 뉴스가 전국 뉴스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언론계 통념을 뒤집는 발상이다.

지역 뉴스의 중요성

교황은 지역 방송이 지역민의 사회·문화·영성 생활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때문에 (전국 뉴스보다) 더 정확하고 진실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방송 덕분에 지역의 현실과 문화,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없었다면 보도되지 않았을 뉴스 등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에 대한) 성찰을 장려하는” 온전하고 사려 깊은 뉴스 보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계화의 두 측면

교황은 “해로운 세계화와 좋은 세계화”를 구분하고, 후자가 “우리로 하여금 일치를 이루고 서로의 팔다리가 되게 한다”면, 전자는 “다양성, 문화, 역사, 전통 등에 가치를 두는 대신 모두를 획일화”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와 다면체

이어 교황은 구체와 다면체의 형상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먼저 “구의 경우 모든 것이 동일하고 균일하며, 각 점들은 중심으로부터 등거리에 있고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다면체의 경우

“일관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성, 곧 위치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방송의 중요성

교황은 이 ‘다면체’가 지역 뉴스채널의 본질과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보에 기반하는 지역 방송은 매우 구체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면서, 이 사명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했다. 첫째, “지역 방송은 그 지역의 현실, 곧 지역 행사, 사업, 문제, 희망 등 지역민의 일상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 방송은 그렇게 얻은 지역의 실상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황은 이것이 곧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 어려움, 빈곤” 등의 사안뿐 아니라 “신앙의 증거”에도 “목소리”를 부여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보 전달

끝으로 교황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연을 전달하는 한편, 무관심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유행을 좇지 않는 현실(사실), “이탈리아 곳곳에 산재한 특별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쓰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마땅히 알려져야 할 수많은 좋은 일들”이 지금도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9월 16일 바티칸 뉴스 번역 | 김단희

저를 보게 하소서

제 자신도 볼 수 없는데
 어찌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 양심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하오나 짙은 구름이 제 죄를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를 짓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주 당신이 명하신 것을 잊고
 당신이 금하신 것을 행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당신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 계명을 저버렸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다 죄지었음을 깨달았다 해도
 금새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찌 당신께 고백할 수 있으며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제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저를 보게 하소서.

 아멘.

복자 파올로 주스티니아니 (15~16세기) : 카말돌리회 수사

지혜의 숲

천진난만

소풍을 갔을 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깨달은 삶이 무엇과도 같은지 알고 싶느냐?
 저 호수 위를 나는 새들을 보아라.”

모두들 바라보는 동안에, 스승은 감탄하여 외쳤습니다.

“저들은 물 위에 그림자를 던지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저 호수도 거기에 아무 애착이 없다.”



2019년 제105차 이민의 날 국내이주사목위원장 담화(요약)

이주민과 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신 철 주교님의 2019년 제105차 이민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아모 6,17ㄴ,4-7	제 2 독 서	1티모 6,11ㄴ-16	복 음	루카 16,19-31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 축제 10. 4.(금) ~ 6.(일) | 전석 무료

- 10. 4.(금) 19:00 드망즈홀 | 범어대성당 '성가대 콘서트'
- 10. 5.(토) 19:00 대성전 광장 | 젊은 솔리스트와 함께하는 '광장음악회'
- 10. 6.(일) 12:00 대성전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성당 오르가니스트 '헤리베르트 메츠거 초청 연주회'

문의 | 053-744-1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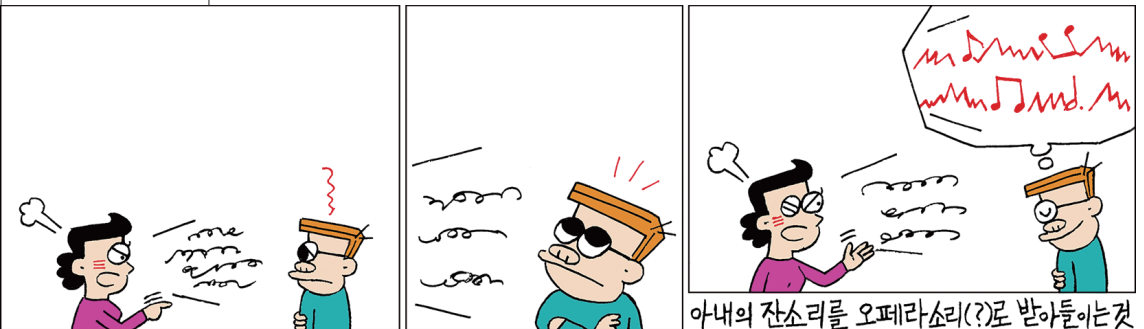
'용서와 화해의 해' 선교 신앙수기 공모

1. 접수마감 : 10월 4일(금) - 공모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2. 공모대상 : 교구 내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신자(1인당 1작품)
3. 공모주제 : 냉담자 회두 및 선교활동사례 / 선교에 관련한 체험담 / 용서와 화해에 관련한 사례와 체험담 /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개종사례 포함)
4.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20매, A4용지 2~4매(한글 11포인트 기준)
5. 출품방법 : (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으로 우편 발송 또는 이메일 jubo@dgca.or.kr 로 전송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와 각 본당에 배포된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2일(수) 19:00 용강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0월 5일(토) 10:00 월배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10.6(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조각보 모임

일시: 매월 셋째주 일 14:00
장소: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주제: 독서와 문화 탐방을 통한 내적 여정
대상: 미혼 여성
신청: (010)2353-6219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10.5(토) 10:00
내용: 찬양미사, 고해성사, 안수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셔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10월 한티 피정

관상을 통한 영적충만(영성): 10.12~13
지도: 배형진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춤을 통한 몸기도: 10.14
지도: 문보나 수녀(그리스도교육수녀회)
문의: www.hanti.or.kr / (054)975-515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 성소 모임

일시: 10.13(일) 14:00~16: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010)9353-1773

제36차 친구약 성경 통독 피정

일시: 10.19(토) 15:00~27(일) 15:00
장소: 성령강림사도수녀회 루하피정센터
문의: (010)3758-3572

평화계곡피정의집 10월 향심기도 피정

일시: 10.26(토)~27(일) 1박 2일
대상: 소개 피정을 원하는 분
문의: (010)3422-7587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3박 4일: 10.3~6 / 11.21~24
8박 9일: 10.9~17 / 11.4~12
40일: 12.13~2020.1.21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교육 | 모집 | 기타

남대영기념관 매듭목주만들기 문화 강좌

일시: 10.14, 21(월) 14:00~16:00
재료비: 2만원(20명 선착순)
문의: 629-1117 / (010)8682-4237

2019_2 대가대 평생교육원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9:00 / 목 14:00
대경CEO 합창단: 화 19:30~21:00
지휘: 토 15:00~17:0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660-5556

전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2기생 모집

개강: 11.26(화)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2020년 가톨릭상지대학교 수시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11.6(수)~20(수)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34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12.31(화) / 2020.1.5(일)
설명회: 10.19(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2

윤영희 성령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희 바로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성형치료정신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중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참사랑실버요양원
참사랑인지마을
주님 안에서 어르신들 내 부모처럼 모십니다.
● 인지마을(치매전문) 오픈 대묘사 전제일(요셉)
● 호스피스실 운영 원장 최용병(베네딕트)
● 장기요양인정등급 1~5(시설등급) 받으신 어르신들 모십니다.
대구 서구 가톨릭로21길 3 | 상담전화 053)563-0657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5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북동동 영대병원 사거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THE 신라
웨딩, 상설·출장뷔페
행사대관, 단체모임, 단체도시락
☎ 문의 1522-2633
대표 이승준(베드로) 박사 010-4355-9057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신인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053)670-60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주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성만(이냐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 윤광제(다윗) 신부
2010년 10월 4일
- 부(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행사 | 모임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행사


일시: 10.2(수) 19:30 학술세미나
10.3(목) 19:30 추도식(Transito)
10.4(금) 19:30 대축일 미사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
문의: (070)4266-0047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찾아가는 미술관

일시: 10.5(토)~13(일)
장소: 죽도성당
문의: (010)6772-1194
4대리구 다문화가정을 후원합니다.

제3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수) 9:00~17:00
장소: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 성령 묵상회

일시: 10.11(금) 13:00~13(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2:10 출발
비용: 14만원 / 문의: (010)9045-0191

교육 | 모집

청년국 1박 2일 피정

일시: 10.26(토)~27(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마감: 10.12(토)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www.dcy.co.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 공개 강의(시와 인생)

일시: 10.10, 17, 24, 31(목) 19:00
장소: 남산동 유스티노강의동
강사: 안도현, 이해인, 강은교, 정희성
선착순 100석 / 문의: 660-5252~4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물다' 영성 강좌

일시: 10.16~11.20 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수강료: 8만원 / 문의: (010)8441-8011

2020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25(금) 10:30, 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영·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노틀담 예비신자 교리서 '사랑의 공동체' 교재 연수

일시: 10.29(화) 9:00~16: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노틀담수녀회, (010)2123-6319

채용 | 안내

하양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35세 이하, PC 능숙한 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10.13(일) / 문의: 852-2715

동인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한 자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422-6290

대구SOS어린이마을 공부방 교사 채용

자격: 교직 정년 퇴임자
업무: 월~금 16:00~19:00
마감: 9.30(월) 18:00
문의: 983-3154

성바오로청소년의집 위생원 채용

일시: 채용시까지 / 자격: 만 58세 이하
서류: 이력서(홈페이지 참조)
접수: 우편, 팩스, 메일, 방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118-22)
문의: (054)382-2834~5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명숙(젼마)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일시: 12.8 / 12.15 / 12.29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난창·이명은
밝은귀청각재활센터&보청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월명성모이집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성모님 사랑안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60세 이상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하신 분
☎054)434-2898

이집트 일주 성지순례
이집트순례 및 시나이산 피정
출발일: 12월 2일 (11박 12일)
성모님 발원지 성지순례
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프랑스(파리)
출발일: 2020년 5월 4일 (13박 14일)
T. (053)253-3399
조 힐 래(유스티노) 흥 미 회(안젤라)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빛)에서 시각장애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독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자사미
• 4종 효소 단식 프로그램
• 알칼리 이온수기 보급
• 판매처(월) 문의
• 자연 치유력 회복, 수질보호
신청미 글라라
T. 010-9363-7784

대형약국
성서동산병원 처방전문
기다리지 않는 약국
신속, 정확한 조제
T.053)582-5698 (건물 안 위치)
대표약사 김형미(율리아나), 박수현(젼마)